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관련 작업반  
하반기 회의 결과

202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민주

# I. 출장 개요

## 1. 출장명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

## 2. 출장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Rural Policy)회의 등 관련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농촌지역발전 분야에서 OECD 국가들이 논의하는 최근의 정책 이슈와 동향을 파악함

## 3. 출장자, 출장지, 출장 기간

- 일 시: 2024. 11. 30.(토) ~ 2024. 12. 7.(토) (6박 8일)
- 장 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컨퍼런스센터
- 출장자: 총 1명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지	출장기간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민주	정책전문연구원	프랑스 (파리)	2024.11.30.(토)~12.07.(토)

- 한국대표단: 총 12명

성명	직급	소속
오성익	사무국장	국토교통부
임현아	사무관	
박정현	사무관	
나은중	사무관	
차시현	주무관	
남혜림	주무관	
안정모	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	
양은모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정민주	정책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원도	부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II. 출장 일정

No.	일자	장소	수행 업무
1	11.30.(토)	인천→파리	○ 인천공항 출국(KE901, 12:10) ○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도착(local time 18:30)
2	12.1.(일)	파리 OECD본부 인근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출장 수행 한국대표단 준비 회의
3	12.2.(월)	OECD본부 회의장	○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4	12.3.(화)		○ 제36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5	12.4.(수)		○ 제47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6	12.5.(목)		○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1일차)
7	12.6.(금)		○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2일차) ○ 출국(KE902, 21:00)
8	~12.7.(토)	인천	○ 입국(17:10)

## III. 회의 의제

일시	주요 일정 및 의제
12.2(월) 09:30~17:30	▶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 2025년 장관회의(폴란드 바르샤바) 준비 ○ 농촌 플래그십 보고서 준비 ○ 농촌정책 강화를 위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축 ○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분과 세션 ○ 중간 도시 및 기능적 농촌지역 ○ 천연자원, 농촌개발 및 ESG
12.3(화) 13:00~17:45	▶ 제47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 2025 장관급 회의 준비: 'OECD Principles on Urban Policy' 이행 5년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 - 도시의 주택 (물가 상승 및 저렴주택) ○ 기후 행동과 회복력(TACAR) ○ 도시의 순환 경제 및 BLUE 경제 촉진 ○ 도시의 넷제로 빌딩 정책

<p>12.4(수) 10:00~17:30</p>	<p>▶ 제36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준에서 소비자·생산자 가격 변화를 활용한 1인당 GDP 및 소득 트렌드 측정</li> <li>○ 주택 위기 측정 방안</li> <li>○ 지역 기반 산업정책 측정</li> <li>○ 서비스 접근성과 동등한 기회</li> <li>○ 데이터, tools, 플랫폼 업데이트</li> <li>○ 지역과 도시에서의 일의 미래</li> </ul>
<p>12.5(목) 10:00~17:45</p>	<p>▶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1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장관급 회의 준비상황 업데이트</li> <li>○ 25년 장관급 회의 전 첫 번째 전원세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y Issue Paper와 전원세션 준비 토론</li> </ul> </li> <li>○ 25년 장관급 회의 전 두 번째 전원세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보고서와 권고안에 대한 토론</li> </ul> </li> <li>○ 25년 장관급 회의 분과 세션 준비: 도시의 글로벌 전환에 대한 회복력</li> <li>○ 25년 장관급 회의 분과 세션 준비: 농촌의 글로벌 전환에 대한 회복력</li> </ul>
<p>12.6(금) 08:30~16:00</p>	<p>▶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2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DPC 플래그십 보고서: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출간</li> <li>○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우크라이나 재건 및 모로코 파트너십)</li> <li>○ 국경 지역 간 협력</li> <li>○ 새 RDPC data set에 관한 개요 및 세부지표</li> <li>○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주택 수요 충족</li> </ul>

## IV. 주요 회의 결과

### 1.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 1.1.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 2025년 장관회의(폴란드 바르샤바) 준비 : OECD 국가 농촌 정책 동향, 농촌 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 및 OECD 원칙 업데이트
- 농촌 플래그십 보고서 준비 : ‘Strengthening Rural Policy’ 보고서 소개, 농촌 경쟁력 강화 및 회복력 개선
- 농촌정책 강화를 위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축
-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에 관한 대화형 분과 세션
- 중간 도시 및 기능적 농촌지역 : 지역개발을 위한 중간도시 역할
- 천연자원, 농촌개발 및 ESG : 임업 개발 이니셔티브

#### 1.2. 주요 회의 내용

##### 가. 오프닝 세션: 승인

- 농촌정책작업반 의장(Chair of WPRUR: Mr. Daniel Baumgartner)의 개회 및 기조 발언  
– 최근 확대되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농촌지역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 내용은 내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핵심주제가 될 것임. 농촌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농촌 정책 강화”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것임. 이 작업반에서 장관회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
-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아젠다[CFE/RDPC/RUR/A(2024)2]에 대해 안건을 승인함.
- 제31차 회의의 요약기록[CFE/RDPC/RUR/M(2024)1]에 대해 승인함.
- OECD CFE(OECD 창업·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부) 활동과 향후 행사에 대한 보고.

##### 나. 의제별 세부 회의 내용

#### 1) 2025년 사무국 지정

- 의장: Daniel Baumgartner(스위스)

- 부의장: Stephane Pronovost(캐나다), Sabrina Lucatelli(이탈리아), Kazuhiro Watanabe(일본), Seong-Ik Oh(한국), Burak Yardimci(튀르키예)

## 2) 2025년 장관회의 준비

- 2025년 5월 19일 공개 개막식, 기자회견 및 장관급 만찬 / 20일 장관회의
- 농촌 정책을 위한 핵심 메시지
  - 경쟁력 강화: 도시 근교 농촌, 도시·농촌 연계, 원거리 농촌지역 성장 잠재력
  - 글로벌 전환을 위한 회복력: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인구통계학적 전환
  - 투자 지원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기능적 규모에서 관할권(Cross-jurisdictional) 간 조정

## 3) 농촌 플래그십 보고서 준비

- 장관회의 개최 전 승인을 위해 봄에 제출될 예정이며, 3월 23일까지 수정, 4월 23-24일에 OECD 이사회에 전달 및 논의할 예정임.
- 실시간 키워드 설문조사(각국의 농촌 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농촌정책강화' 보고서
  - 중요한 것은 국가 간 수렴이지만, 국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불평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함.
  - 과거에는 복지와 기회에 대해 많이 논의했지만, 불평등과 비대칭성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추가되었음. 체계적 구분, 신규 분석 및 결과, 분석에 소프트 지표 도입, 농촌 복지 심화, 기후의제 중요성 강조, OECD 농촌 원칙

채택 5년 이내 도입.

- 최근에 등장한 주요 메시지는 지역 간 차별화, 성장 기회 확대, 농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메가트랜드 및 쇼크는 전체적인 대응 필요.
- 농촌은 밀도가 부족하고,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할 수 없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두 지역을 더 가깝게 할 수 있음.

#### ○ (사무국 발표2) 농촌 정책의 OECD 원칙

- 우리는 11개 원칙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가, 왜 국가별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 학습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원칙을 모니터링함.
- 정량평가를 위해 18개 국가로부터 11개 원칙에 대해 4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정성평가를 위해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600여 명의 피드백을 받음.
- 장관회의를 위해 2-3페이지의 요약본을 준비할 예정임.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아일랜드) 2021년 농촌개발정책으로 'Our Rural Future(2021-2025)'를 출범시켰으며, 실행기간은 2025년까지로 설정되어 진행중임. 2026년 초에는 후속정책이 마련될 예정임.
- (EU) 농촌 지역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에는 농촌 공동체를 위한 많은 권고사항이 담겨있으며, REA(Rural Economic Action Plan)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최근에는 극단적 기후변화(홍수, 산불, 가뭄 등)가 농촌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더 많은 지원 필요성이 커짐.
- (스웨덴) 스웨덴 농촌의 농촌 및 도시 정책의 구현 및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스웨덴 지도자들이 직면한 과제를 조사함. 서비스 제공에서 솔루션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룹화할 수 있는 10가지 주제를 식별함.
- (네덜란드) 지역 기반으로 나타나는 불만은 정치적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자금이 도·농간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고 느끼는 것에서 나타남. 이러한 감정에 주의를 기

울이고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대처할 수 있음. 네덜란드는 농업과 자연을 위한 공간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25년만에 ‘식품·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Basic Act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을 개정함. 농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촌 관련 인구(rural related popul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함.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5년간의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수립 중에 있음.

\* 도시 외곽에 살고 있으면서 농촌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사람을 포함

- (폴란드) 도시 및 농촌의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해 지역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단계에 있음. 특히 도시와 소도시, 중소도시들이 균형잡힌 구조로 국가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있음. 지역에 대한 분류도 수정하고 있음. 소외 위험이 있는 지역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임. 지역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이탈리아) 농촌 교육에 있어서 비용 외에도 법적, 규범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여전히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함. 주택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농촌에 주택이 많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OECD에서 주최한 주택 관련 회의는 매우 도시 중심적이었음. 또한 농촌지역에 의료인력을 유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 그리고 농촌 지역과 산지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워크 등 새로운 기회가 이동을 촉진하고 있음.
- (스페인) 스페인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및 지역적 응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지자체들은 디지털 전략 2035(Digital Strategy 2035)와 스페인 공공 행정 디지털화 계획(Plan for digitalization of the Spanish Public Administrations, 2021-2025)의 틀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질 향상,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

#### 4) 농촌 정책 강화: 경제적 차원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농촌 정책 강화’: 경제적 차원

- 평균 수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함. 예로 독일의 경우 TL3지역이 타 국가보다 훨씬 많아 가중치 데이터 계산을 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함. 따라서 각 국가의 내부 패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서 절대적 규모의 인구 감소가 관찰됨.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소규모 중심지 인근 지역의 47%는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년간 11개 국가는 소규모 FUA 인근 비대도시에서 1인당 GDP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농촌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스마트 지역화(smart visilization)가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원격근무 환경의 스타트업 등 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각 국의 지역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권고 측면에서 도시 인근 지역은 도시 지역의 기술이나 교통 및 물류 허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와 연계된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간 연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외곽지역의 경우 틈새시장을 식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가 가속되고 있어 지역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자동화 기술 도입이 필수적임.

#### ○ (사무국 발표2) 농촌혁신을 위한 여건 구축

- 프로젝트 시작 당시 발굴한 농촌 기업가에게 혁신 지원 전달을 위한 주요 과제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노동력 및 기술 접근성임.
- 농촌 혁신을 위한 정책 전달에 대한 시사점은 ①지방정부의 중요성: 많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큼.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 보건 관련 기관이 이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②rural proofing을 통한 직접적(R&D, 파트너십,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간접적(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금융지원, 산업정책 등) 지원 등이 중요함. ③사회적 혁신의 중요성: 농촌 공동체 개발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중요함. 사회적 혁신은 기술혁신과 다르며, 농촌 지역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이주민 기업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기존 공공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스위스는 농촌 기업가 지원을 중앙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접근방식을 선택함.
- 농촌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스타트업 마을이나 다양한 지역 혁신 시스템 등).

#### ○ (사무국 발표3) 일본의 농촌 혁신

-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임. 또한 높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어 특히 활동이 활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혁신 격차는 큼. 농촌지역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감소하고 있음.
- 농촌지역 혁신 촉진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추천함. ①농촌지역 혁신 확산에 초점 ②혁신 정책을 지역에 맞게 조정, 전달을 위한 정부 구조 개선 ③농촌 고령화에 맞는 혁신 정책 맞춤화 ④농촌 지역 혁신 기회 개선 및 정보 접근성 향상 ⑤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 □ 주요 발표 내용(일본, 터키)

##### ○ (일본 발표) 농촌 혁신 강화에 대한 일본 사례 소개

- 일본은 지역자원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정부는 지역사회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역관리조직(RMOs,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이 전통적인 농촌 커뮤니티 역할을 넘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봄. RMO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원활용에 대해 논의하며, 그 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을 구축함. 예를 들어 RMO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함.

##### ○ (터키 발표) 터키의 농촌 혁신 및 평가

- 터키의 농촌 혁신은 ①농촌혁신(농촌 혁신의 정의, 동력, 혁신 지표)과 ②농촌지역 정의로 구분하였음.
- 농촌 혁신에 관한 몇몇 데이터는 마을 단위까지 있지만 몇몇 데이터는 큰 행정구

역 단위로 있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혁신을 넓은 시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26개 지표를 도출함.

- 농촌 지역 정의는 지역 다양성을 고려한 분류작업을 수행함. 농촌 혁신에 관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촌 규모를 식별하고자 함.
- 농촌 지역의 혁신은 기술이나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올바른 지표에 따라 체계적 접근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방지해야 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 (라트비아) 경제적 차원에 관한 라트비아의 활동

- 2021년 시작된 행정개혁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어 농촌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도시 인근 지역과 농촌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심지 및 농촌 지역간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스마트빌리지를 개발하고 있음.
- 지역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 접근법처럼 ‘리더(LEAD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의해야 함.
- 공공서비스, 지자체, 국가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16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원거리 지역에서 중요한 서비스임.
- 농업어업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매출 150,000유로 이하 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EU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이 학계와 협력하고 있음. 이는 지역적, 국가적, EU차원에서 진행되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촉진함.

### ○ (한국) 혁신을 위한 인적 요소 중요성 강조

- 농촌지역의 혁신과 발전에서 리더십 역할이 간과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경우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을 상업화한 사례가 많은데, 단순히 자원을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을 이끄는 리더십이 농촌지역 상업화 및 관광 유치 전략의 성공 사례로 이어진 것임. 따라서 리더십 요소는 농촌 혁신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타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해야 함.

## 5) 농촌 정책 강화: 사회적 차원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 (사무국 발표) 서비스 전달에 관한 사회적 측면

- 도시와 농촌의 PISA 점수 격차는 45점에 달하며, 국가 및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격차가 나타남. 특히 OECD 국가 전반에서 여성들이 더 큰 격차를 경험하고 있음.
- 농촌 지역의 1인당 서비스 비용은 기능적도시지역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더 높음. 서비스 비용 격차는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 출산서비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따라서 농촌 인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높음.
- 접근성 데이터를 보면, 병원에서 20분 거리 내 인구 비율에서 국가 간 불균형이 나타남. 디지털 격차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마지막 실무그룹 회의에서 우수사례를 분석함. 농촌 지역은 비자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 중심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발견함. 이는 농촌 지역에서 학교, 병원 등 주요 서비스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 도시 인근 농촌 지역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연계는 자원 공유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및 원격 서비스(학습, 의료 등)를 통해 농촌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①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주택 및 교통 지원 등) ②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③도시-농촌 파트너십을 활용한 자원공유 및 서비스 확대
- 포르투갈에서는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장려하며, 청년과 기업가에게 보조금을 제공함. 핀란드와 스웨덴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학습 및 의료를 위한 원격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

### □ 주요 발표 내용(한국, 아일랜드)

- (한국) 농촌 지역의 서비스전달 강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를 도입

- 청주시 현도면은 지역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가 50% 이상임. 해당 지역은 기존 고정 노선 중심 교통에서 2023년 DRT로 전환되었음. 고정노선과 변동(응답형)노선을 같이 운영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버스에 플랫폼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버스는 플랫폼 운영사에 플랫폼 비용을 지불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여 콜센터를 운영함.
- 그 결과, 농촌 지역에서 이동시간도 줄어들고, 운영비도 22% 절감(승객 1인당 교통비는 91% 절감)하였음.
- 이 사례의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①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교통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 ②새 모빌리티 시장 구축을 위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 ③첨단 모빌리티 기술 활용으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절감.
-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 해야한다고 언급하지만, 이 사례는 IC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농촌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음.

○ (아일랜드) 2018년에 발표된 국가 계획 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Framework, NPF)와 농촌주택정책에 대한 발표

- 아일랜드는 2018년 국가계획프레임워크를 통해 2040년까지의 개발과 투자전략을 설정하였음. 이 프레임워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농촌지역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지역, 지방의 계층적 정책 구조를 통해 정책이 일관성있게 수립되도록 설계됨.
- 정책의 계층적 구조는 ①국가차원: 전체적인 개발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 ②지역차원: 3개의 지역 의회는 각 지역에 특화된 지역 사회 및 경제 전략 수립, ③지방차원: 31개의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각 지방의 정책 수립과 계획을 검토하며, 지역 고유 행정 및 사회적 요구 반영
- 지역 내 인구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농촌 마을과 소도시의 빈집 및 기존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인프라 수준에 맞춘 지속가능한 주택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건축 대신 기존 주택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동부지역(더블린 등)의 과도한 성장을 줄이고, 북서부 및 남부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쇠퇴한 농촌마을과 소도시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주택 개발을 위한 정책을 도입함. 이와 같은 다각적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미국) 미국은 농촌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using)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조립식 주택은 현장 건축 주택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를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보조금, 대출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음.
- (칠레) PISA 점수와 관련하여, 팬데믹 이후 점수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칠레는 팬데믹 기간동안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습 격차가 더욱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코로나 전후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여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6) 농촌 정책 강화: 환경적 차원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 농촌 지역은 전체 배출가스의 40%를 차지하며, 에너지, 산업, 교통 부문이 주요 배출원임. 에너지 부문은 전 세계 배출가스의 25%를 차지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촌 지역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프로젝트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농촌 지역은 긴 이동거리, 제한된 인프라, 높은 연료 소비 등으로 인해 교통 부문의 더 큰 과제에 직면해있

음. 이는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고, 농촌 주민들이 기초서비스(ex. 의료 등)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

- 농촌 지역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토지 및 탄소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경제다각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음. 농촌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농업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 주요 발표 내용(캐나다)

### ○ (캐나다) 캐나다 북부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Nunavut 사례 연구)

- Nunavut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임. 도로 네트워크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역이 항공과 해운에 의존하며,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아 대부분 에너지가 디젤발전소에서 공급됨. 디젤발전소는 고비용 구조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태양광, 풍력과 같은 대체에너지는 계절 및 기후 조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함.
- Nunavut 지역은 건축 자재 가격 및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이 부족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운송비용이 높아 식료품 고물가와 제한된 선택지로 식량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됨. 이는 초기비용이 높고 기술장벽이 있지만 디젤을 대체할 수 있으며, 외딴 지역에 적합함 소형 에너지 생산 시설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 대체에너지 개발, 주거혁신(모듈형 주택, 3D 프린팅 건축 등) 및 지역기반 식량 생산 시스템 도입 등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자연과 농업을 위한 공간

정책(Space for Agriculture in Nature)”을 도입하여 생태학적 도전 과제가 복합적인 지역을 지원함. 아울러 농업인들이 생태학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성과 기반 접근법을 도입함. 또한 농촌 지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정적 수익 확보와 농촌 지역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 정부는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의 조화로운 통합을 목표로 함.

- (호주) 호주의 지역사회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고있어 재난 대비와 복원력 강화가 주요 과제임.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Disaster Ready Fund와 National Preparedn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Nature Repair Market Scheme을 통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자연 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넷제로(Net Zero) 전환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혜택 보장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있음.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생태농업 촉진과 유기농 커피·카카오 같은 지속 가능한 제품의 국제 수요를 활용해 농업의 녹색 전환을 추진 중임. 주요 과제는 산림 파괴, 불공정한 토지 분배,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함. 산림 보존 인센티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제안하며, 성공 사례로, “Árboles para Respira”라는 환경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농업 생산성을 통합해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 모두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7) 대화형 분과 세션

- 분과는 ①Economics ②Social ③Environment ④Governance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은 Social분과에 참여
- Social 부문에 대한 주요 과제
  - 서비스 접근성 부족: 의료, 교육, 교통 등 공공서비스 제공 부족, 원거리 지역의 교통망 및 ICT 부족
  - 인구 고령화 및 낮은 출산율: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지역에 학교와

공공서비스 부족, 농업이나 기타 전통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의 농업 기피 현상 발생

- 이주민 관련 사회적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원주민-이주민간 갈등, 이주민의 적응문제와 공공서비스 및 교육 부족
- 농촌지역 주택 문제: 노령 인구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주택 구조와 도시지역 대비 넓은 부지와 낮은 주택 밀도로 인해 제한되는 인프라 투자
-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산업구조전환으로 인해 농촌 지역 실업률 증가, 경제활동 감소로 지역경제 활력 저하

○ 상기 언급된 주요 과제에 대해 제안된 솔루션

- 서비스 접근성 개선: ICT 활용한 원격 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이동식 의료와 같은 현장서비스 확대, 교통망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교통정보시스템 도입
- 인구고령화 대응: 지역사회에 맞춘 공공주택 개조 프로그램 도입(ex. 노인안전시설), 소규모 주택간 밀도를 높이는 계획 수립, 청년층을 위한 농업 훈련 및 직업 교육 제공
- 이주민 통합 지원: 귀촌 초기 경제적 적응을 위한 보조금 제공, 지역 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 주택 개선: 소규모 주택 개보수 지원, 노령층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주택 정책을 통해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옵션 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구조 개선
- 주민 참여 및 민간 부문 역할 확대: 지역 사회와 협력해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 유도, 프로젝트 기반의 단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 실행
- 이 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중앙-지방간 책임 분배와 협력 모델 개발 등

## 8) 중간도시 및 기능적 농촌 지역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지역 개발을 위한 중간도시의 잠재력

- 이 프로젝트는 24년 여름에 시작되어 26년까지 계속될 예정임. 중간도시의 유형을 식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별, 도시별로 중간도시가 다르게 작동하며, 대도시 근교와 외판 지역의 중간도시는 고유 기능과 특성을 가짐. 중간도시의 역할은 연결역할(대도시, 중간도시, 소도시간 연결), 지원 역할(주변 농촌 지역에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활성화) 역할이 있음.
- 프로젝트 구조는 1단계 분석적 작업과 2단계 정책적 작업으로 구분됨. 1단계는 중간도시가 수행하는 7가지 주요 기능(비즈니스, 교통, 주거, 문화, 보건, 교육, 행정 등)을 조사하고, 도시의 규모(인구 5만~25만)와 계층적 역할(ex. 행정, 경제 중심 도시)을 기준으로 중간도시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함. 2단계는 중간도시의 격차와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과제를 식별하고, 중간도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를 제시함.
- 7가지 기능에 기반한 데이터를 분석중이며, 국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간도시에 대한 정의 및 정책 전략을 조사(22개국 응답). 6개국은 중간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보유, 10개국은 일반 도시 정책에서 중간도시를 포함함.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캐나다) 중간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중간도시 분류 방식이 캐나다의 기존 통계 분류와 유사해 보임. 이에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이며, 결과 및 자료는 사무국과 전문가 그룹에게 제출할 예정임.
- (한국) 유럽의 중간도시가 북미나 아시아와 비교했을때보다 더 작다는 것은 좋은 포인트임. 그러나 이 규모에 대한 논의가 모든 국가의 도시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정부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음. 백화점도 50만 이상 규모의 도시에 입점하고 있음. 그래서 중간도시의 규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EU)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며,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중간도시를 기능에 기반해 정의할지, 아니면 규모, 위치, 도시계층 등 특성에 따라 정의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하나

를 선택해야 함. 유럽에서는 농촌 인구의 절반이 기능적 도시 지역 내에 거주하며, 이는 도농간 협력 잠재성을 보여줌.

- (불가리아) 기능, 규모, 지리적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리아의 지역 개발 및 공간 계획 등 미래 정책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함.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능적 관점(서비스 제공, 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성할 수 있음.

## □ 주요 발표 내용2(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2) 농촌 지역에 대한 더 나은 정의
  - 농촌지역은 직업뿐만 아니라 여가 공간과 서비스 접근을 위해 이동하는 지역으로 이해될 수 있음. 현실적인 이동선을 고려하여 지방 간 경계를 넘어선 지역을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기능적 도시지역(FUAs)과 농촌 지역은 연계된 형태로 작동하며, 지역간 연결성을 평가해 그룹화하는 것이 필요함. 연결성은 사람들의 이동 및 상호작용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현재 프레임워크 문서와 함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국가에서 데이터 가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데이터 품질, 글로벌 데이터 통합, 데이터 전처리 등의 문제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농촌 정책에 가장 유용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실시간 설문조사: 1위 응집성(Cohension), 2위 균질성(Homogeneity), 3위 수요-공급 균형(Balance), 4위 자율성(Autonomy)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한국) 심플하게 도시를 식별하는 방법도 필요함. 예를들어, 한국에는 교보문고라는 서점이 대도시에는 많이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없음. 이런식으로 어떤 종류의 스토어가 분포하는지에 따라서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음.
- (이탈리아) 지역을 정의할 때 공통 특징을 제시하면서도 국가별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국가별 통계 능력과 데이터 가용성을 반

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빅데이터와 통계 도구는 지역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관련 행정기관 및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장기적 과정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함.

## 9) 천연자원, 농촌개발 및 ESG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광산지역과 도시, ESG에 관한 2024 OECD 컨퍼런스 개요 및 결과

- 광물 프로젝트에서 약 절반이 원주민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원주민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 이 회의에는 5개국의 35명의 원주민 지도자와 6개의 주요 광산 회사가 참석함. 이들은 ESG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논의함.
- 광업은 농촌 지역에 도로 및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여건 개선 기회를 제공함 (ex. 캐나다 온타리오 북부의 Ring of Fire 프로젝트는 항공으로만 접근가능한 원주민 지역에 도로와 에너지를 공급). 이 프로젝트는 탐사 단계부터 원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임. 정부는 기업, 연구기관, 기타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은 농촌 및 외지의 여건 개선 기회 제공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ESG 국제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준에서의 실행이 미흡함.
- 문제점으로, 동일 광산에 여러 기업이 지원하거나, 기업 계획이 지자체 계획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업의 단기적 성과 목표와 지역사회의 장기적 우선순위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ex. 호주와 칠레에서 특정 원주민 지역에만 지원이 집중되면서 주변 지역과의 불평등이 심화). 또한 기업의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사회가 유지 관리 역량을 잃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논의에서 제안된 해결책은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하는 것,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조정할 역량 강화, ESG 국제 표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 및 커뮤니티 간 갈등 방지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 (사무국 발표2)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수행 작업, 광업에 관한 최근 토픽 동향

- 에너지 전환 핵심 원료로 광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이 중요

과제로 대두됨. 공급망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기구와 협력하여 연구 중임.

- RBC 표준을 국제 이니셔티브에 포함시키기 위해 UN, 콜롬비아 등과 협력중임.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포럼(Forum on Responsible Mineral Supply Chains)이 매년 개최되며, 2025년에 정책 입안자를 위한 특별 세션 예정임. 이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RBC 표준을 확대할 계획임.

#### ○ (캐나다 발표) 캐나다 서드베리(Sudbury)의 광업 사례 소개

- 서드베리(Sudbury)는 10개 광산, 300개 이상의 관련 회사가 있는 숙련된 광업 도시임. 원주민과의 협의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 관계가 되어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이익을 창출하고, 광업 발전 기회를 강화해야 함. 특히“원주민이 승리하면, 우리 모두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원주민과의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있음.
- 전기차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주요 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채굴 자원의 출처와 지속가능성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OECD 회의를 통해 온타리오 사례 연구를 시작하며,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광산 작업의 많은 부분이 외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업체도 원주민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함.

#### ○ (사무국 발표3) 임업과 농촌 개발 간의 연계

- 임업은 경제, 사회, 기후변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리적 특성과 기능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함. 도시 내 산림, 도시 외곽 산림, 외지 산림의 기능적 차이와 상호보완 관계를 고려한 공간적 정책이 필요함.
- 거버넌스 측면에서 토지 이용 갈등 관리, 원주민 권리 보장 및 참여, 소유권 구조 이해, 통합적 계획 수립이 핵심과제임. 산림의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 개발 연계 정책이 필요함.
-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초안 문서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드림.

#### ○ (사무국 발표4) 기후 행동의 초석인 산림

- 매년 산림파괴로 인해 4.5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정이 있음. 산림 내

탄소 저장량은 산림면적과 탄소 밀도에 영향을 받음.

- FAO 데이터 분석 결과, 산림 면적은 4% 감소했으나 탄소 밀도는 1%만 감소함(산림 파괴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산림에 집중됨). 산림 파괴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ex. 브라질,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 50% 이상, 탄소 흡수원 10% 이상 손실, 핀란드: 산림과 건강상태는 정책 실행에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
- 경제적 상충 요소를 극복하고, 산림 파괴 원인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임. OECD는 산림 정책에서 회원국들이 벤치마킹하고 모범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산림 복원 및 파괴방지 정책의 국제 표준화
- 2025~2026까지 권고안을 완성하고 국제 워크숍을 통해 다각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라트비아) 산림경제는 생산성 면에서도 전자, 제약, 건설자재에 이어 4위를 차지함. 따라서 산림 부문의 증거기반접근이 매우 중요함. 내년 봄 워크숍에서 산림 전문과와 협력해 다른 작업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함. 또한 OECD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 부문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파악해야 함. 라트비아 정부는 이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까지 전문성을 제시할 것임.
- (한국) 산림의 CO2 포집 능력이 저하되어 산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했을 때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임업 이니셔티브에 생물다양성 관점을 추가해서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제안드림.

## 10) 기타 및 마무리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업데이트
  - 북유럽 저밀도 지역 보고서: 인구 구조와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두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14개 지역을 다룬 보고서. 올해 말 발간 예정
  - 인구학 변화 연구: 10개 지역사례 연구 진행중이며, 다부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논의

- 네덜란드 세미나에서 다룬 불만 문제와 중간도시 프로젝트 관련 페이퍼 발표
- 광업 프로젝트 관련 EU내 10개 지역 사례 연구 진행중으로, 내년 중반 완료 예정

○ 다음 회의 준비

- 기후변화, 천연자원, 도시 환경 대응이 주요 주제이며, 브라질과 협의 진행중임
- 내년 3월 비대면회의를 통해 회의 결과 보고서 준비

## 2.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1일차 본회의 결과

### 2.1.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 지역 회복력을 위한 지역 정책 강화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 정책 활용
- 지역 개발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자 강화
- 농촌 지역의 세계적 변화에 대한 회복력 구축

### 2.2. 주요 회의 내용

#### 가. 오프닝 세션: 승인

- 제50차 회의 요약기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RDPC 회의 다음 단계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확대 국장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수정 선언문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나. 의제별 세부 회의 내용

##### 1) 장관급 회의 준비상황 업데이트

- (일본) 일본은 차기 장관회의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일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기여할 것임. 일본은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 개발 계획과 주택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의 역할을 인정함. 또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민간 투자를 통한 회복력 증진을 제안함.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기대함.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고령화와 군인 기지 병상 사용의 지역적 차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 강조됨. 노르웨이는 도시와 농촌 간 불균등 발전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도시 중심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농촌 지역의 경제 성장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모

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소득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농촌 지역의 경험과 인구감소를 다루는 계획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목표 설정이 필요함.

- (미국) 선언문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이 생산성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 혁신 촉진, 기후 회복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관리 등과 관련이 있음. 포용적 성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을 넘는 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특히 생명공학과 양자 기술 등 신기술이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AI와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필요함.
- (영국) 영국은 5월 말에 장관급 대표를 보낼 것임. 지역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주택, 기술 개발을 정부 기금의 3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택과 학교를 핵심 이슈로 강조하는 것을 지지함. 또한, 넷제로 전환을 위한 지역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성평등을 포함한 국제적 약속을 선언문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OECD 젠더 전략과 제안된 행동계획에 동의하나, 장기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유연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자금 지원 여부와 우선순위 합의 과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선언문 완성을 위해 OECD 5개국과 협력할 예정임.
- (포르투갈) 기후 변화와 인구 통계 변화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해야 함. 또한 사회 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함. 마약 퇴치 계획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와 그 해결 방안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문별 또는 지역 내 한 계층의 접근방식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또한 위원회가 지역 정책에 대한 주요 지식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함.
- (캐나다) 캐나다와 같은 연방 국가를 위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며, 캐나다의 연방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헌법적 관할권을 반영한 표현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지역 산업에 대한 참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과 건강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반드시 다뤄져야 함.
- (네덜란드) 지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주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과 HUD 지역 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임. 특히 네덜란드에서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의

대화를 통해 균형을 정의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과거에는 모든 지역에 학교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새로운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리투아니아) 이 문서는 복원력, 기후변화, 비상사태 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안보와 연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특히 팔레스타인과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쪽 국경 문제, 국경 지역 개발 및 이민과 통합이 향후 10년 동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임. 다가오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EU) 우리는 동부 국경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과의 확장 국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체코) 대부분의 문서에 동의하지만, 선언문에서 저렴한 주택 문제와 지역 정책에 대한 반대임. 취약한 지역과 전환기를 겪는 지역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함.

## 2)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 정책 활용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개발정책 활용: 장소기반 산업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함.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 내 산업 활동의 분포와 생산성 차이를 해결하고, 산업정책을 통해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중요함. 특히, 산업 입지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광산지역을 고려하고 지역 낙후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제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의 기술 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산업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 개발이 중요함.
  -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유치가 필수적이며,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글로벌 수요에 맞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자급자족과 신뢰성 강화는 많은 OECD 국가들의 우선 순위로,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환경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일본)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일본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패키지를 마련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계층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전략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일본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과 혁신도시로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과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일랜드)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음. 지정학적 문제와 공급망 충격, 세계화와 기업 투자 방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 전환과 탈탄소화의 필요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아일랜드는 해양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수요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투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은 장소 기반 산업정책에 관심을 두고, 소외된 지역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교차 협업을 강조하는 지역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더 나은 지역 재건 챌린지'를 통해 21개 지역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약 11,000개 기업이 참여했음. 또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에 걸쳐 1억 4,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혁신 전략을 육성하고 있음.
- (영국) 영국은 정부 교체 후 산업 전략을 수립하며, 금융 위기 이후 낮은 투자 수준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안정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큰 공간적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있음. 전략은 기업의 공동 입지, 지식 로버 육성,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소 기반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와 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응집 효과를 포용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지역 개발을 위해 협업과 혁신 클러스터를 강조하며, 산

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결하는 정책을 도입함.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FDI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OECD와 협력하여 투자 정책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는 국가정책을 지역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AI와 관련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AI를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개발 전략이 지역의 필요에 맞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북부와 프레리 주에서는 녹색 전환 전략을 통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또한, 지역 개발 기관은 AI 투자를 지원하는 투자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균형 잡힌 영토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기술 지원을 통해 주요 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화석연료 의존 지역의 탈화석연료화와 재생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쟁력 및 혁신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부, 민간, 학계의 협력이 필요함.
- (한국) 한국은 지역 개발 수출이라고 부르는 지식 공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함.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일본 및 OECD와 함께 지역 발전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의 지역 발전을 분석·공유함.

### 3) 지역 개발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자 강화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지역 개발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지원 외에도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투자 효율성 개선이 중요함.
  - 주요 장애물로는 하위 국가 전략 계획 부족, 수직적 정부 간 관계 문제, 재정 프레임워크의 병목 현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투자 계획 실행에 어려움을 초래함.
  - 2025년 보고서는 다층적 투자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개혁 진척 상황을 추적하고, 국가들이 규제 일관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진전을

보였음.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재정적 제한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업데이트된 권고안은 다층적 균형을 강조하고, 회복력과 민간 투자의 촉매제로서 공공 투자 역할에 중점을 둠. 또한,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월 8일까지 서면 의견을 요청드림.

○ (사무국 발표2) 이번 발표는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공공 투자 권고안’의 이행 상황을 다룸. 이 권고안은 2014년에 채택되어 41개국이 준수하고 있음.

- 주요 원칙으로는 지역 개발 전략과 투자 연계를 강조하며, 투자와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호주는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를 예산 과정에 활용하고,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소개함.

- 또한, 공공 투자 시 장기적인 영향과 위험을 평가하는 것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이 중요함. 칠레의 국가 투자 시스템과 덴마크의 ‘해수면 대화’와 같은 사례를 통해 투자 시 사전 평가와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함. 아울러,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중요함.

- 공무원의 기술 역량 강화와 공공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며, 사후 평가가 널리 퍼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권고안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국가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폴란드)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위 국가 수준에서의 역량 강화와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필요로 함.

○ (일본) 민간투자와 공공투자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도시재생 논의를 활성화하려고 함.

○ (포르투갈) 지역 정책의 국제적 관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약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지역 정책 개선을 추진 중임.

○ (이탈리아)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개발 개입과 국가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공공 투자 개혁을 통해 중앙-지방 간 시너지를 촉진하고 있음.

○ (영국) 지방정부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지도자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택, 교통 및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예정임.

- (유럽지역위원회)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지역 솔루션을 강조하며, 재정 분권화와 지역 참여가 중요함.
- (유럽지방자치단체대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과 투자의 한계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콜롬비아)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 투자 최적화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회복력을 촉진하고 있음.

#### 4) 농촌 지역의 세계적 변화에 대한 회복력 구축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농촌정책강화 보고서(Strengthening rural policy)에 대해 소개함.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 간 융합과 내부의 비대칭성,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불만을 강조하며, 농촌의 경쟁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농촌을 대도시 근처, 중규모 도시에 가까운 농촌, 외딴 시골 지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함.
  - 새로운 요소로는 갤럽 데이터와 신뢰도 조사 같은 부드러운 지표를 통해 농촌의 인식과 신뢰도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과 도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촌정책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설계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함.
  - 농촌의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도 존재함.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1인당 GDP는 농촌이 더 높을 때도 있어 지역 간 경제적 균형이 중요함. 또한,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농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국 발표2)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부의 14개 지역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구통계,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원격 도시의 다양성 관리 방안을 모색한 사례로 구성됨. 프로젝트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쟁력, 혁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했음.
  - NSPA 지역은 외딴 지역과 낮은 인구 밀도를 공유하면서도 도시와 비교해 우수한 경제 성과를 보였고, 특히 1인당 GDP 성장률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나타냄.

- 청년들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MSPA는 하이테크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녹색 전환에 있어서는 지난 50년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 배출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프로젝트는 2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1월 말에는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스웨덴)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 영향과 지역 회복력을 위한 정책 형성이 중요함. 또한, 지역 간 협력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연계 강화가 필요함.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인구 고령화와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유지가 중요함.
- (핀란드) 핀란드는 북유럽 지역 간 협력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하며, EU 정책에 맞춘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3.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2일차 본회의 결과

#### 3.1. 안전 및 주요 논의사항

- OECD 사무총장 연설(2024 RDPC 플래그십: 지역과 도시 한눈에 보기)
-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우크라이나 재건 및 모로코 파트너십)
- 국경 지역 간 협력
- 새 RDPC data set에 관한 개요 및 세부지표

#### 3.2. 주요 회의 내용

##### 가. 의제별 세부 회의 내용

##### 1) OECD 사무총장 연설(2024 RDPC 플래그십: 지역과 도시 한눈에 보기)

- (OECD 사무총장) 2024년 OECD ‘지역 및 도시 한눈에 보기’보고서는 98개의 경제, 사회, 환경 지표를 바탕으로 20,800개 지역과 1,200개 도시의 성과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임.
  - 주요 정책 인사이트로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 기회 확대, 디지털 연결성 강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외딴 지역의 적응 필요성 등이 제시됨. 또한,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녹색 전환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비즈니스 컨설팅이 중요함. 지역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기회 평등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도쿄 도지사) 도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혁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절반 감축과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와 해상 풍력 발전소 도입 등 에너지 혁신을 추진 중임. 도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우와 홍수를 관리하는 회복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을 추구함.

##### 2) 우크라이나 재건 및 모로코 파트너십

##### □ 주요 내용

- (RDPC 의장) 5월 장관급 회의 직후 뉴욕과 우크라이나 관련 공식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지역 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임. 우크라이나 총리가 RDPC에 참가국 지위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며, 서면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
-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역 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의 지방분권 개혁 과정에 참여함. 재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효과적인 재건을 위한 전략, 재정, 행정 역량 강화와 투명성 증진을 위한 경험과 교훈 공유가 매우 중요함.
- (체코) 체코는 2022년 하반기 체코의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수년간 협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지역 개발에도 우리의 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 또한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수출 사이트를 지원할 것임

### 3) 국경 지역 간 협력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더욱 회복력 있는 국경간 지역 구축’을 주제로 발표함. 국경 지역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에서 멀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며, 특히 EU 국경 지역은 GDP와 실업률 등 주요 지표에서 비국경 지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도로 및 철도 연결이 부족하여 국경 지역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경 간 협력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경제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구의 구조 점검, 전략적 계획 강화, 자금 조달 메커니즘 개선 및 국가 차원의 규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LEED 부의장) 비엔나는 그 자체로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맞닿아 있음. LEED의 주요 목표인 정책 실행, 혁신적인 관행, 지역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각국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함.

- 매년 개최되는 지역개발포럼에서는 지역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됨. 올해 지역개발포럼은 국경 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펜하겐과 스웨덴 남부 국경을 방문하여 협업과 공식적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공유했음. 또한, 국경 간 노동시장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와 기술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지역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네덜란드)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일부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선진적인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구의 1/3이 국경 지역에서 통근하며 살고 있어, 국경 간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독일) 독일은 국경 지역에 대한 13개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모델이 특징임. 지역 협력은 피해 지역 관리뿐 아니라 인프라와 가치 사슬을 통한 협력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각 지역의 법과 행정 차이로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동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연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와 디트로이트 간 긴급 협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무역, 안보,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워싱턴, 오리건주 간에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환경 협정 등으로 국경 지역을 관리해왔음.

※ 한국대표단의 귀국일정으로 인해 본 회의는 아이템9(국경 지역 간 협력)까지 참석함.

## 4. 제36차 도시정책작업반<sup>1)</sup> 회의 결과

### 4.1.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 RDPC 플래그십: 지역 및 도시 한눈에 보기
-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우크라이나 재건 및 모로코 파트너십)
- 국경 지역 간 협력
- 새 RDPC data set에 관한 개요 및 세부지표
-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주택 수요 충족

### 4.2. 주요 회의 내용

#### 가. 오프닝 세션: 승인

- WPURB 의장(Karen van Dantzig) 개회 및 기조 발언
  - 대표단은 지난 6개월 동안의 도시와 도시정책 관련 사무국의 활동 보고서(CFE/RDPC/URB(2024)20)를 검토할 것을 권장
- 제36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아젠다[CFE/RDPC/URB/A(2024)]에 대해 안건을 승인함.
- 제35차 회의의 요약기록[CFE/RDPC/URB/M(2024)1]에 대해 승인함.
- OECD CFE 소장 발표
  - 대표단에게 CFE의 최근 및 예정된 도시와 도시정책 관련 활동에 대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특히 ①회복력, ②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첫째,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회복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회복탄력성 강화의 핵심임.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함. 이러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격차 감소를 위한 포용성의 개념도 회복탄력성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녹색일자리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미래 사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일부임
  - 둘째, 디지털화와 AI의 성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내 디지털화 및 AI 유틸리티 활용 격차

1) 회의 결과물은 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토연구원과 협력하여 회의 전문을 작성함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몇 주 전 발간된 ‘고용 및 경제발전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음

## 나. 의제별 세부 회의 내용

### 1) 2025년 집행부 지정

- 의장: Karen van Dantzig(네덜란드)
- 부의장: Oli Voutilainen(핀란드), Roni Bar(이스라엘), Itsuhiro Miura(일본), Özlem İnan(튀르키예), Joanna Averley(영국), Kurt Usowski(미국)

### 2) 2025년 장관회의 준비(OECD 도시정책 원칙 5주년 성과)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WPURB 의장) 2019년 3월 19~2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RDPC 장관급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OECD 도시정책 원칙을 환영하며 원칙 이행을 지원할 것을 OECD에 요청함. 이후 2022년 6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도시포럼에서 ‘OECD 도시정책 원칙 이행 도구(Implementation Toolkit)’가 발표되었으며, 이 원칙은 전 세계 도시정책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사무국 발표) ‘2025년 RDPC 각료회의로 가는 길, 또는 OECD 도시정책 원칙의 5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발표
  - － 원칙1. 다양한 규모의 도시 잠재력 최대화(maximise the potential of cities of all sizes)하에서 중간도시의 기능을 정의하고 유형화하고자 노력함.
  - － 원칙3. 도시와 농촌 간 상호의존성 지원(support urban-rural interdependencies)하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이것이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다른 유형의 도시와 비교하여 중간 도시 간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도시 간 기능과 지표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함.
  - － 원칙4.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 설정(set a clear vision for National Urban Policy)과 원칙7, 부문별 정책 조정(align sectoral policies)하에서 80%이상의 조사 국가들이 NUP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의 NUPs 기후에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확인함.
  - － 원칙6. 모두에게 기회 제공(provide opportunities for all)하에서 도심과 교외 지역 사이의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소득뿐 아니라 접근성 측면에서도 도심과 교

외 지역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함. 이러한 불평등은 고용과 교육 기회로도 연결됨.

- 원칙11. 모니터링, 평가 및 책임성 강화(foster monitoring,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를 통해 국가도시정책의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76%의 국가가 자신들의 NUP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 10곳 중 9곳이 SDG target 11.A.1를 모니터링하며, OECD 국가들 중 39%의 지역, 즉 1/3이 넘는 지역이 17개의 SDGs 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함.

-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수행. ‘지난 5년을 돌아보며, 귀하의 정부는 OECD 도시정책 원칙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진행함. 11개의 원칙 중, 상위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됨.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Target policies to places)

\*2위. 모든 규모의 도시를 육성한다(Foster cities of all sizes)

\*3위. 도시와 농촌 간 상호의존성을 지원한다(Support urban-rural interdependencies)

\*4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Promote opportunities for all)

\*5위. 부문별 정책을 조정한다(Align sectoral policies)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프랑스) 크기가 각기 다른 도시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도시 간 연결 이슈와 크고 작은 도시들 사이의 문제들에 집중하는 일은 중요함. 프랑스에는 살로니키 해안 수변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음. 또한 통합된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중요함.
- (그리스)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칼람비 지방 자치단체의 물 관리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 유산과 연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임
- (이스라엘) 지난 5년간의 노력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진행해온 많은 이니셔티브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함. 이스라엘의 도시 정책은 다각화, 도시재생, 대중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대도시 지역에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을 승인함.
- (한국) 한국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함. 도시재생은 지난 몇 년간의 최우선 과제 였음. 최근에도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함.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예: 주택공급, 치안, 위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1972년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첫 국가도시정책을 도입함. 한국에서 국가 도시정책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계획,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한국의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됨
  - 이러한 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은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함.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 저성장 추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 비전과 공간전략을 제시함
  - 또한 국가도시정책과 하위 계획, 중앙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함. 성과는 매년 평가되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
- (일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따라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방, 완화 및 복구 중심의 도시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 그린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녹지공간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도시녹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 개발업체가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균형을 강화하고자 함
  - 도쿄와 같은 대도시와 지방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콤팩트 시티 플러스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지역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력, 지속가능성, 혁신성을 갖추고자 노력함
- (미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국은 구조계획, 인플레이션 감소 법 등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입법 조치를 시행했고,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쇠퇴한 도시와 지역에 자원을 분배하여 이들이 포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에스토니아) 다양한 규모의 도시들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정책을 통해 지역적 차별 없이 모든 도시들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 3)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 재창조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도시 조성’ 연구에 대해 발표(25년 4월 보고서 발간 예정)
  - 도시의 규모와 인구 추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모든 규모의 도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는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도시 행정이 도시 설계, 개발,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에서 연령 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도시는 다양한 연령이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생애주기의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투자해야 함. 또한 연령을 포용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자가용에 많은 사람이 의존하게 되면 교통 혼잡, 배기가스 배출량 증가 등 환경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근로의지가 있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도 필요함
- (일본 발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특히 주택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일본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미혼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주거 지원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거리, 공원, 광장, 심지어 개인 공터와 같은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건강과 환경 모두에 매우 유익한 걸길을 장려하고 다양한 그룹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사람 중심의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안하고 걷기 좋은 도시 이니셔티브를 시행함
  -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OECD 회원국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신흥국들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보고서가 여러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한국) 한국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가구 등 모든 연령대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유형과 조건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노력함. 저소득가구와 노인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혜택을 제공함
  -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과 프로그램은 생애주기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도시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미국) 모든 연령대에 접근할 수 있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에 따라 모든 건물에 ADA를 준수하여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환경을 크게 개선함
- (프랑스) 프랑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도시 정책을 시행함
- (그리스) 그리스는 연령, 성별, 라이프스타일과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즉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함.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조성하며 성장동력으로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모든 연령대를 위한 도시 보고서 초안에서도 이미 호주의 사례가 다루어졌음.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이용 등에 대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 도시 내 모든 사람을 위한 주택 제공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주거 문제는 OECD 회원국들이 당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함. 주택의 적정성 개선, 취약층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주택 품질 향상, 거버넌스와 재정 개선이 필요함.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택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무국 발표2) ‘Spotlight on housing in Czechia’라는 주제로 주택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함.
  - 체코는 지속적인 주택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더욱 악화되었음. OECD는 EU의 Technical Support Instrument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 체코가 주택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체코와 함께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사업을 통해 체코의 1,800개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택 문제를 조사하고, 체코 도시의 주택 경제성을 개선하고 체코 주택 전략 개혁을 위한 제언을 함
  - 저렴한 주택과 관련한 법령 도입과 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역량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캐나다) 캐나다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4년 4월 새로운 주택 계획을 발표함. 계획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을 더 쉽게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캐나다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함.
- (한국) 최근 한국의 일부 도시들은 대규모 개발이나 대형건설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저밀도 주거지가 밀집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시작함
  - 구도심 내 신시가지가 혼재하거나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음. 따라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과 규제 완화, 주택기금의 용자를 제공할 예정임
-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도시 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 및 고자산 가구를 위한 고급 주택과 최저 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주택 사이에 있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도시에 보다 저렴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주택 건설을 추진함
  - 행정부의 주택공급실행계획에는 신기술 촉진, 자금 가용성 증가, 교통 및 경제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됨

- 최근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업계의 인식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비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더 잘 지어진 주택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보험업계가 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향후 수십년 동안 100만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목표는 연간 10만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며, 그 중 2/3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고자 함. 정부는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저렴한 주택, 건설 및 공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과 건설 요건을 단순화,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5) 기후행동 및 회복력에 대한 지역적 접근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지난 30년 동안 기후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Climate Change Expert Group은 UNFCCC협상을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함. 합의된 결과물인 ‘바쿠 기후통합 협정(Baku Climate Unity Pact)’은 재정, 탄소시장, 감축 및 적응에 관한 결정을 담고 있지만, 다른 중요한 결정들은 다음 해로 연기됨

- 고위급 챔피언(high-level champions)의 임무는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partnership과 함께 2030년까지 연장됨. COP29 의장은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다부문 행동경로(Multisectoral Actions Pathways)를 출범시켰으며,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도시 개발 이해관계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건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2025년 OECD 협상 관련 작업의 시사점은 ①기후변화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글로벌 적응목표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②기후 재정 관련 작업을 수행하며, ③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탄소시장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감축 및 적응에 관한 의견서(UNFCCC submissions)를 제출할 계획임

○ (IPCC 부의장 발표) ‘IPCC Special report: Climate change and cities’라는 제목으로 20일에 발표될 도시와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의 준비 상황을 소개함

- 이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도시가 왜 중요한지, 기후변화라는 트렌드가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도시 문제 감소를 위한 해결책, 어떻게

변화를 촉진하고 가속화 할 수 있는지(정책, 자금조달 등), 다양한 타입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해결책에 관한 내용에 관해 서술함

○ (사무국 발표2)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TACAR)’라는 제목으로 발표함.

- TACAR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후계획 및 전략에 국가와 지역 기반 관점을 통합하는 동시에 국가, 농촌, 지역 개발정책과 기후목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임

- TACAR 지표를 사용하여 현재 상태를 벤치마킹하고, TACAR가 권고한 9가지 조치에 따라 현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음. 지역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36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음(국가단위 분석과 도시단위 분석을 수행함)

○ (일본 의견) 일본 환경성은 TACAR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OECD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프로그램 결과가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함. 올해 3월에 열린 제6차 유엔 환경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는 향후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함.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책과 다른 활동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국가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를 통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1가지 조치를 담은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2030을 채택함

- 주요 도시를 포함한 에스토니아 3/4이상이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목표로 노력함

○ (독일) 독일은 올해 7월 독일연방기후적응법을 발표함

○ (프랑스)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프랑스도 노력 중임.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건물의 탈탄소화, 즉 에너지전환건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자체 스스로 이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을 개발하고, 5년마다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함.

○ (캐나다) 지역 수준에서 녹색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하고, 현실적인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 6) 순환경제 및 블루경제 도시로의 전환 가속화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순환경제 및 블루도시로의 전환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함.
  - 연구내용은 EU 내 순환경제 현황, EU 순환도시 및 지역 분석, 순환경제와 관련된 다중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MLG)체계에서의 주요 도전과제와 기회, 순환경제와 블루도시 전환을 위한 향후 전략과 방향성으로 구성됨
  - 유럽연합은 사람과 기업정책, 장소에 초점을 맞춘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 중임. UCL 런던대학교 및 독일 뷔르투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워크숍에 따라 지역의 주요 강점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정책 권고안을 마련함. 순환바이오경제를 강화하고 산업과 도시가 공생하며, 순환경제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주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순환경제를 도구로 고려하는 권고안이 포함됨
- (사무국 발표2) 2025년 UN 해양회의 준비 상황 논의 및 2024년 10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의 블루경제(The Blue Economy in Rio de Janeiro) 보고서를 소개함
  - OECD 데이터에 따르면 광범위한 기후 위협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지역 응답자 중 86%가 기후변화를 중요한 위협으로 응답함. 연안도시와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이 더 두드러진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물 부족과 가뭄이 더 중요한 문제로 꼽힘
  -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세 가지만 강조하고자 함. 첫째, 정부 차원의 명확한 역할 배분이 필요함. 둘째, 물안보가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에 놓임. 셋째, 투명한 경제정책과 자금조달이 필요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스페인) 스페인도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풍부한 천연가스로 인해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비해 매우 저렴함. 따라서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경쟁력을 갖지 못함. 미국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면 더 많은 혁신과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이 정착되어야 함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순환경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다양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함
- (그리스) 그리스는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섬 지역을 포함하여 섬 경쟁력 강화, 해양 관광, 선박 건조 및 수리, 해양 재생에너지 및 생명공학의 발전과 이러한 산업에서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해양은 매우 중요함. 12개의 중요한 항구가 있고, 생물다양성, 투어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7) 도시 내 탄소중립 건축물로의 전환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도시 내 제로 탄소 건축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함. 최근의 제로 탄소 건축물과 관련한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2024년 3차 OECD 지속 가능한 건축물 원탁회의를 소개함
  - － 첫째, 건축 및 건설 산업은 전 세계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며, 기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이고, 둘째,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을 유지할 경우 건축자재생산 및 운송,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21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건축물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전 과정 탄소 배출(whole life carbon)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일본 발표) 일본의 WLC Assessment를 소개하고, J-CAT(Japan Carbon Assessment Tool)의 개발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WLC 평가방법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형성되었으며, 미래의 전 과정 탄소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IEA 발표) 건축물 탈탄소화에 대한 유럽의 관점에 관해 설명함. 유럽 건축 부문은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 부문 중 하나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2%를 차지하며, 에너지 관련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함

- 2024년 5월, 에너지 성능 건축 지침(EPBD)가 공식 발효되었고, 2028년 1월부터 회원국들은 부속서3에 따라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GWP)을 계산하고 이를 에너지성능인증서에 공개해야 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미국) 미국에는 산업실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63억 달러를 투자하여 8개 산업 분야의 33개 프로젝트에 14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분야의 저공해 생산을 포함해 최첨단 탈탄소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탄소 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의 전환을 모니터링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물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 8) 마무리 및 기타

- (사무국 발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적응형 공동 공간(Rethinking space in cities—Unlocking the potential of Adaptive Communal Space)에 대해 소개함
- 최근 OECD와 UN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적응형 커뮤니티 중심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함. 팬데믹 이후, 도시화,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주요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 국가는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견고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짐. ACS는 지역 커뮤니티가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연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공간 중 일부는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거나,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기도 함

## 5. 제47차 지역지표작업반<sup>2)</sup> 회의 결과

### 5.1.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 지방정부 단위의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변화를 활용한 1인당 소득 및 GDP 경향 측정
- 주택위기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
- 장소기반 산업정책 측정의 개선
- 서비스 및 기회균등으로의 접근성
- 데이터, 툴, 플랫폼에 관한 업데이트
- 지역과 도시에서 직업의 미래

### 5.2. 주요 회의 내용

#### 가. 오프닝 세션: 승인

- 안건(CFE/RDPC/TI/A(2024)2)과 회의 요약 기록(CFE/RDPC/TI/M(2024)2)을 소개하고, 두 문서에 대해 승인함

#### 나. 의제별 세부 회의 내용

##### 1) 2025년 집행부 지정

- 의장: Eva Hagsten(스웨덴)
- 부의장: Eedi Sepp(에스토니아), Teodora Brandmuller(EU), Rupert Kawka(독일), Mi-Jeong Choi(대한민국), Bart Wezeman(네덜란드), Sonia Torres(포르투갈), Richard Prothero(영국)

##### 2)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변화를 활용한 지역 단위 소득 및 1인당 GDP 변화 측정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지수를

---

2) 회의 결과물은 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토연구원과 협력하여 회의 전문을 작성함

활용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함

- 지역지수를 사용할 경우 지역별 조정된 GDP 값의 총 합이 전국 GDP 총합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마다 경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민감한 지역별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별로 집계할 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방법과 데이터 출처를 활용할 때 집계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EU) 통계구축을 통해 지역별 생산성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그리고 소비자 물가 와 생산자 물가 등 물가지수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 통계기관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희망함
- (스웨덴)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변화를 활용한 지역 단위 소득과 지역 GDP를 이야기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지역 GDP의 총합과 국가 전체 GDP의 격차가 작은 국가도 있지만, 큰 국가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 궁금함
- (독일)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화는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임. 따라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네덜란드)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구조의 영향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함
- (포르투갈)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포르투갈의 경우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3) 주택위기를 추적하기 위한 더 나은 측정 방법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2023년 6월13일 열린 6차 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미팅에서 채택된 ‘브뤼셀의 모두를 위한 저렴한 도시와 주택(Bressels Blueprint for affordable cities and housing for all)’은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약속함.

- 첫째, 모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둘째, 취약한 계층이 저렴하고 질 높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함. 셋째, 주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함. 넷째,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포함하여 주택 품질을 개선함. 다섯째, 공공부문의 혁신을 활용하여 더 저렴한 도시를 실현하고, 주택 정책의 관리와 자금조달방식을 개선함

○ (사무국 발표2) 2023년 기준, 대규모 기능적 도시 지역(FUA)에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규모 FUA보다 거의 7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남. 지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은 중규모 및 대규모 기능적 도시 지역(FUA)에서 가장 급격히 상승함. 주택 구매 가능성 위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지난 10년 동안 지역 내 주택 소유율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수도권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무국 발표3) ‘주택 수요 지리적 분포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ECO와 SDD의 합동프로젝트를 소개함.

-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의 주택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노력했고, 연구 결과 도시의 주택 가격은 소도시보다 63% 높고, 농촌 지역보다 135% 높다는 것을 확인함. 2016년 이후 절반의 국가에서 도시의 주택가격이 소도시와 농촌 지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주택가격은 규모가 다른 소도시들 간에도 차이를 보이지만, 도시에서의 차이보다 작게 나타남. 마을 간 주택 가격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도시로의 접근성이라는 것을 확인함

○ (빈 공과대학 발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에 대해 발표함. 본 연구는 실제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봄. 시각화 작업을 통해 유럽의 주택가격과 구매가능성 지도화를 설명하고, 주택가격과 광고 기간의 빈도 분포 분석 결과를 소개함

- 맵핑 시각화 지도에 따르면, 유럽 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프랑스와 프랑스 해안 지역이 알프스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나 독일,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임대 시장이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에스토니아) 국가별 평균 주거용 부동산 거래비용은 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불평등은 수도권과 출퇴근 지역, 외진 시골지역, 북동부 에스토니아 도시 간에도 크게 나타남
- (미국) 미국은 미국 주택가격지수를 민간 부문(웹 기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제공하고 있고, 연방주택금융 기관은 입주 지역에 대해 연간 주택가격지수 데이터를 제공함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주거장소로서의 주택과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함. 노르웨이는 최근 영토 차원에서 주택의 경제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수도권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지방의 주택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실제 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집을 팔지 않고 제2주택으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추가 거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

#### 4) 지역 및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2024년판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혁신적인 지역과 도시’를 주제로 발표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OECD 국가 내 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수도권 지역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지난 20년 동안 수렴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남. 둘째, 무역 개방성과 신규 그린필드 FDI(Greenfield FDI)는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소수의 지역이 대부분의 무역 및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셋째, 혁신은 대규모 기능적 도시 지역(FUAs)과 특정 지리적 클러스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맨체스터 대학교 발표) 생산성 데이터 연구소 (Productivity institute)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및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함. 생산성 데이터 연구소는 지방정부, 기업, 학계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허브임. 현재 영국 각 지역의 그린 디지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분포를 매핑하고 시각화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 (스웨덴 발표) 스웨덴 북부를 중심으로 녹색전환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문헌에서는 기업 및 시설의 입지 결정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재산업화는 성장 개선의 필요성, 불안정한 공급망, 또는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음

-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스웨덴에서 일자리수와 고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배경에는 두 가지 상반된 단계가 존재함을 확인함. 첫째,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일자리수 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일자리에서 두드러짐. 이러한 증가세는 스웨덴 북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둘째,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규모 일자리와 고용자 수의 증가가 더 강해짐. 베스테르보텐(Västerbotten)과 노르보텐(Norrbotten)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고용 변화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됨. 스웨덴 북부에서 베스테르보텐이 가장 강한 발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평균보다 낮음.

#### □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미국) 미국 경제개발청은 장소기반 산업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측정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창업 수, 자본조달과 같은 지표를 통해 건설 및 비건설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측정을 위해 노력함

### 5)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관한 업데이트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 6) 서비스 접근성과 기회 균등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OECD 접근성 매뉴얼에 대해 발표함. 매뉴얼의 주요 목표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에 있음
  - 접근성을 구축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지자체나 지역과 같은 행정 단위와 더 관

련이 있다는 데 동의했음.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의 경우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계획을 포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 접근성 측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접근성 지표를 위한 기준도 제시함. 지표 생성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와 함께 데이터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음
- 매뉴얼에서는 오픈 소스 라이닝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함. 예를 들어 라우팅은 매뉴얼의 핵심 부분에 있는 코드 조각이 중요함. 이 방법론은 복제 가능한 예제를 기반으로 함. 예를 들어 프랑스 도시의 초등학교까지 도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간단한 예가 있으며, 이후 이를 확장할 수 있음

○ (사무국 발표2) ‘인구변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압축도시 및 지역 개발의 연계’의 한국 사례에 대해 발표함.

- 한국은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지만 매년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서울로 유입되고 있음. 그 결과 서울 수도권은 도시 팽창, 주택 부족과 높은 집값,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한국은 도시화 정도 1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도시화된 국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음. 한국은 10명 중 4명, 평균은 4명인데 비해 한국은 4명 중 약 3명이 도시에 거주함.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도시화 정도 레벨 2로 이동함
- 서울은 32개국 표본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음. 한국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서도 1위를 차지했음. 서울시는 한국 도시 인구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32개 국가 중 17번째로 분포의 중간에 위치함.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임
- 성장하는 정착촌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움. 한국의 인구 증가는 주로 두 개의 클러스터에 집중됨.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임
- 그리고 서울 주변의 동남쪽은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정착촌이 성장했음. 동남부에서는 어떤 곳은 인구가 증가했고, 어떤 곳은 인구가 감소했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반드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음. 이 두 클러스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착촌은 인구 감소를 경험했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은 이러한 다른 지역의 외판 지역임.
- 분석의 두 번째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춤. 이에 대한 양질의 국제 데

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음. 분석의 국제적인 부분을 위해 약국, 학교, 은행, 병원, 고등 교육 기관의 다섯 가지 서비스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종합 지수에 넣었음

- 따라서 무료가 많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서비스 유형 중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임. 한국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마을과 도시에는 대도시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있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도시에서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마을과 마을을 살펴보았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 중에서 정착지가 지역 중심지인지 여부를 고려함.
- 자신의 거주지에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가까운 도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더 외진 곳에 있는 마을이나 마을이라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어렵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동네 약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패턴이 유지되지 않음. 따라서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
- 온라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앱과의 연결이 될 수도 있음. 그런 다음 지역 거점을 파악함. 이 작업은 두 가지 정의에 따라 수행됨. 첫째, 지역 허브는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있는 가장 큰 정착지여야 함. 따라서 지역 중심지여야 함. 둘째, 서비스 허브여야 함.
-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도입한 버스 방식이 탐구의 출발점이 되었음. 이는 지역 허브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민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지역 거점은 그 자체로 더 큰 정착지에 가깝지 않다는 의미의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 지도는 37개 지역 허브의 분포를 보여줌.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므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임. 지역 허브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 최대 정착지인 마을도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 그리고 지역 허브는 그런 점에서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음. 최종 보고서는 아마도 2025년 1분기에 서면 승인을 받을 예정임

○ (사무국 발표3) OECD 보건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함.

- 보건의료에서는 일차 진료와 병원 진료와 관련된 지표가 있음. 그러나 의료 시스템은 또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양질의 치료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내년부터는 응급 치료에 대한 선별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계획임. 데이터 검증이 끝나면 내년 9월에 발간 예정인 심혈관 질환 보고서와 내년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기후 변화와 건강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계획임
- 현재 2025년 국가 암 프로필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임. 또한 일부 국가의 2025년 프로필에는 암 검진, 진단 장비, 종양 전문의 대기 시간, 상담 및 암 수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원본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음

○ (한국 발언) 대한민국 정부는 공간계획에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지표를 수립하고 있음. 그 중 국토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국토지표 시스템인 국토종합조사는 주거, 경제,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토 지표를 구축하여 특별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제도임

- 국토 지표는 정부가 보유한 주소 정보를 좌표 데이터로 변환해 만든 것임. 이 지표는 단순히 숫자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격자 단위로 시각화되어 표시됨. 예를 들어 공원이 가까운 지역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됨.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어디에 공원을 개발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사무국 발표4) 사회적 이동 및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OECD 관측소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적 기회와 불평등을 연구하며, 특히 기회 불평등의 정의와 지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머신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측정법을 통해 아동 빈곤, 자산 빈곤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함. 이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적 이동성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탐구하며, 2025년 2~3분기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임.
- 프로젝트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팬데믹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분석함. 또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해 지리적 이동성과 지역 조건이 개인의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며, 새로운 데이터와 통찰력을 생성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음.

## 7) 데이터, 툴, 플랫폼 업데이트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1)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 건강, 교통 분야의 서비스 접근성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활용한 국제 비교 가능성 향상 작업을 다루며, 지리적 범위 제한 및 서비스 품질 정보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언급됨.
  - 또한, 디지털 연결성 프로젝트에서는 시골과 도시 간 연결 품질 격차를 분석하며,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진행 중임. 중개 도시 프로젝트는 인구 25만~50만의 중개 도시가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석하며, 교육,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 중임. 한편, SDG 도구는 지역 및 도시 단위에서 SDG 성과를 시각화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되었음.
- (EU 발표) 유럽 내 국경을 넘어선 도시 통계 연구는 국경을 도시 정의의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고, 국경 간 협력과 통합을 탐구하려는 노력임.
  - 현재 11개 국경 도시 사례를 분석하며, 유럽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위치함을 확인했음. 그러나 국경 간 통근 데이터를 포함한 기능적 도시 지역 식별은 데이터 부족과 조화된 정의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연구는 국경을 초월한 도시의 기능과 협력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의 조화와 시계열 구축을 목표로 함.
  - 기능적 도시 지역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분석 중인 11개 사례를 20개로 확대할 계획임. 룩셈부르크와 코펜하겐 같은 사례는 도시 자체가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기능적 도시 영역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는 데이터 비교와 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경 간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과 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임.

## 8) 지역과 도시에서 직업의 미래

### □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사무국 발표)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되었지만, 지역별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차이를 보임. 특히 여성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력이 남아 있음.
  - 녹색 전환이 진행되면서 저배출 활동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기술 격차와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가 불균등한 상황임. 또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산업 및 인력 구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침.

- 원격 근무는 팬데믹 기간동안 확산되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혼합형 근무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큼. 하지만 원격 근무의 확산 정도는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음. 또한, 고등 교육 기관이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기술 전환과 인력 준비를 방해하는 지리적 불평등이 존재함. 노동시장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 교육의 지역 분포 개선과 기술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필요함.

○ (사무국 발표2) 재택근무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 팬데믹 이전에는 재택근무가 드물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고 현재는 주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정착함.

-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 2~3일 재택근무가 일반적이며, 이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만족도와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또한, 재택근무는 기업에 공간 비용 절감과 인재 확보의 장점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재택근무가 도시 구조와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옴.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교외로 이주하며 생활과 소비의 중심이 교외로 이동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직원 관리와 성과 평가 방식에서 조율과 결과 중심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함. 재택근무가 직장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하이브리드 근무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사무국발표3)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I는 기존 자동화 기술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더 높은 고용 노출을 보임.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또한 AI가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기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AI의 영향은 국가와 지역마다 상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기업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채택할지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AI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AI를 업무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